

杜詩誤解

九

七十七

|     |
|-----|
| 冊   |
| 45  |
| 136 |



6101  
40  
C.C.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三

望嶽 古詩三首 律詩三首

望嶽

岱宗夫何如齊魯青未了 岱宗은泰山이니 東岳이라

은엇지라齊와魯人仕해프른 造化鍾神秀 비치모디아니호엇니니오

陰陽割昏曉 鍾은藥也이라割은分也이라

造化神秀호들외 選為昏曉也이라 造化神秀호들외

盪胸生曾雲決眚入歸鳥 盪胸은層雲之氣

上詩十三

라入歸鳥는决裂目皆而望호야入于鳥之  
歸處也。라○層層히나는구루에가소문

眺하호고늘시우를벼여디개  
會當凌絕頂

一覽衆山小  
외히죄고문호번보리라

### 望嶽

南嶽配朱鳥秩禮自百王  
南嶽은衡山。南方之星

祭祀에秩禮는百王○로브티호는다歛吸  
라○南岳。朱鳥을配對호야는다歛吸

領地靈鴻洞半炎方  
歛吸은神化。但를시

○歛吸호야件胡百靈을가는렛고邦家用  
라○歛吸호야件胡百靈을가는렛고邦家用



도다 울 위 렷 紫蓋獨不朝爭長業相望 爭長은言相峙而立

고니 如相爭長也 라 長은丁丈反 라 業은山高負 라 紫蓋는고을로來朝 고 다

아 니 고 야 고 尊長호문드도 아 구즈기서르 라 닐다 恭聞魏夫人群仙

扶翺翺 魏夫人은神仙 라 니 祝融峯上에有魏夫人은 고 仙人 라 〇 恭敬 고 야 드로

이 魏夫人은 고 仙人 有時五峯氣散風如飛 이 魏夫人은 고 仙人 有時五峯氣散風如飛

霜 有時에다손윗부리옛氣運 라 牽迫限 고 霜은 고 有時에다손윗부리옛氣運 라 牽迫限

脩途未暇杖藜岡歸來觀命駕沐浴休玉堂 고 脩途未暇杖藜岡歸來觀命駕沐浴休玉堂

알 脩途未暇杖藜岡歸來觀命駕沐浴休玉堂 고 脩途未暇杖藜岡歸來觀命駕沐浴休玉堂

라 ○ 인 길 티 갈 그 지 이 쇼 매 브 타 들 여 노 폰  
 외 해 학 대 디 퍼 올 아 불 餘 暇 一 일 다 니 도 라  
 을 제 술 위 에 어 타 오 모 볼 보 아 三 嘆 問 府 主 曷  
 沐浴 亨 야 正 堂 何 쉬 유 라 三 嘆 問 府 主 曷  
**以 贊 我 皇** 府 主 三 指 潭 州 守 也 一 帖 ○ 三 番  
 으 스 그 로 배 우 리 牲 璧 忍 衰 俗 神 其 思 降 祥  
 님 금 품 소 오 리 오 牲 璧 忍 衰 俗 神 其 思 降 祥  
 子 스 들 禮 神 亨 는 거 사 라 言 俗 雖 衰 祿 亨 나  
 忍 修 牲 璧 而 祀 神 亨 면 必 降 百 祥 亨 리 니 이  
 贊 助 吾 君 之 事 一 라 ○ 儀 牲 과 子 스 를 衰  
 俗 은 太 마 亨 라 鬼 神 一 祥 瑞 나 리 오 모 소 랑  
 亨 리

丈人山

自為青城客不唾青城地不唾地也敬之也

그대다와요르브더青城 為愛丈人山丹

擲近幽意青城山在蜀郡 丈人山為五嶽

다山有穴이通崑崙 丈人山은為 丈人山張道古의

丈人山은為 丈人祠西佳氣濃緣雲擬住

最高峰丈人祠西에 아름다온氣運이

리에가잇고 掃除白髮黃精在君看他時氷

雪容黃精草을 射山에 有神人고니 肌膚一若

氷雪 ㅎ니 이노 또로 제은 양 조물 나루니라  
○ 氷雪 어리 룬 비라 비 필 황精 어 잇스 니그 디  
호양 조물 보라

### 望嶽

西嶽 峻嶒 竦處 尊諸 峯羅 立似 兒孫 華岳은

라 峻嶒은 重疊 負라 言 諸 峯의 羅 列 其 下

如 兒孫 之 侍 父 祖 也 라 니 라 ○ 西岳 一 노

파 구 즉 ㅎ니 히 尊 ㅎ니 여 러 뒤 부 安得 仙人

라 비 러 처 시 니 兒孫 이 온 도 다

九節 杖 拄 到 玉女 洗頭 盆 列仙傳에 有 九節

華山 上에 有 石 盆 ㅎ니 可 容 水 數 斛 이 니 俗

呼 玉女 之 洗頭 盆 이 라 ○ 옛 테 仙 人 의 아 息





물고와 불휘 他皆任厚地 爾獨近高天

다들겨운 산홀오던히너갓갓도다 白榜千家

邑 淸秋萬估船 白榜 縣額을以白為牌也

빛고위비와이쇼몬니라니라오 淸額 淸은

노다 詞人取佳句 刻畫竟誰傳 淸은 淸은

刻畫 其形容 하나 終難傳播 하나 甚言 作詩

之不易也 하나 淸은 淸은 하나 淸은 淸은 하나

엇는니 淸은 淸은 하나 淸은 淸은 하나

天寶初 南曹小司寇 舅 於我大

夫人人堂下아累다木이為山이一이筭이盈이

尺이以代彼朽木아承諸焚香아甌이

甌이甚安矣아旁植慈竹아蓋茲數峰이

이嶽岑嬋娟아宛有塵外數致이乃不이

知興之所至아而作是詩아로香爐아노아

臺아를아인아고아니아되아거아늘아이아재아假아山아인아고아라

香爐아를아노아고아니아라아○天寶人아처아어아의아南

曹人아小司寇아스아비아술아호아야아자아비아우아리아어

아아님아잡아아아리아홀아곧아외아화아외아홀아인아고아로아되

直아구아르아세아자아히아초아게아홀아야아비아의아쉬아근아남

클아대아고아고아참아뛰아우아는아구아은아甌아를아노아고아니



運이 나날 일  
의 옛도 다

江河 波池溪潭附  
律詩十五首

古詩九首

三川觀水漲二十韻 三川縣이屬  
麟州하나라

我經華原來不復見平陸 華原은郡名이라  
此는言爲水이所

沒也이라○내華原은  
任平호무를보다못하리라  
다오니 北上惟土

山連天走窮谷 하너그  
히로소너하늘해니  
어가곧

빛도다 火雲無時出  
飛電常在目 이  
은구루

미히고바양상오  
미에나임사남고  
노노번게상대  
누대잇도

다 自多窮岫雨行潦相飗蹙飗 水相擊也

라 ○ 기 혼 외 해 비 해 오 모 로 보  
터 길 해 으 리 시 르 다 일 헛 도 다 翁 翁 川 氣 黃

群流會空曲翁 翁 為 孔 反 也 翁 翁 口 答 反

호는 흐릿氣運이 누르니 몹스  
르 는 으 리 빈 구 의 로 못 낫 다 淸 晨 望 高 浪 忽

謂陰崖踣踣 踏 也 陰 崖 之 踣 也 一 言 高 浪 也 如 陰 崖 之 踣 也 一 言 高

아 츠 리 노 쯤 몹 거 를 비 라 고 忽 然 하 恐 泥 窟

蛟龍登危聚麋屈泥 滯 也 蛟 龍 一 言 泥 滯 也 蛟 龍 一 言 泥 滯 也

밋도 다 枯 查 卷 拔 樹 礪 硯 共 充 塞礪 硯 罪 反 言 高 硯



루허江海一邑 漂沙拆去岸 漱松栢禿

물애노두들기며티가노니잇고 乘陵破山

門回幹裂地軸 地有三千六百軸 訖니라

과두르힐취地軸 交洛赴洪河 及關豈信宿

關은雁關也 一라再宿日信 一라 洛水에

셋기곤고루므로가나關에이치가모엇

테여러밤 應沉數州 汝如聽萬室 哭

을흐든야液 후리로소니萬室 穢濁殊未清

風濤怒猶蓄 風濤이猶怒而不已也 一라

터럼고호린거사고장물더못호나부루  
어윤거라초호미오히러담사헛도다  
何

時通舟車陰氣不騫黷  
어느저거빈와슬위  
陰氣

어듬거아浮生有蕩汨吾道正羈束  
言當世之  
亂

吾道一拘束而不得伸也  
一라○쁜人生애  
두루도노아잇고비의道노正히얼위은뜻

다도入寰難容身石壁滑側是  
言天地雖大  
而若無所容

이오山石一滑而不得安行  
호니感傷之言  
也  
一라○사름사노사해도모  
문容納호이

어렵고石壁도릿그러  
雲雷屯不已艱險路  
위아글기우려뵈노라

更踞  
躡은藥玉反호니曲也  
一라○구름과  
올예왜屯聚호요문마디아니호누나



어려운 길이라 **普天無川** 梁欲濟 願水縮

하늘을 헤쳐 버려서 **因悲中**

**林士未脫葬魚腹** 此는 官有 沈溺 之患也

나더 못호물지스 **舉頭向青天**

**安得騎鴻鵠** 야보노나

타가

**奉同郭給事 湯東壘** 湫作

**東山氣鴻濛** 宮殿居上頭 東山은 驪山也

나  
宮殿이  
○東山에  
眞運이  
피릿는  
君來必十月

樹羽臨九州  
○玄宗  
一每年  
十月에  
幸溫湯宮  
也

나  
나  
○남금  
미오  
샤  
문반  
득기  
十月에  
하  
시  
나  
나  
○남금  
미오  
샤  
문반  
득기  
十月에  
하  
시

陰火煮玉泉噴薄漲巖幽  
○陰火  
一玉  
又  
玉泉을  
有

글  
히  
는  
듯  
흔  
적  
라  
○陰  
火  
一  
玉  
又  
玉  
泉을  
有

時浴赤日光抱空中樓  
○浴  
宮  
는  
나  
바  
차  
空  
中

人樓의  
紅  
閣  
風入  
轍迹  
曠原  
延冥  
搜  
閣  
風  
曠

遊  
巖  
高  
而  
冥  
搜  
也  
一  
라  
○  
閣  
風  
이  
술  
위  
자  
하

예 드는니 曠原이면 뒤 拂天萬乘動觀水石

丈湫 湫는池也 이위여 드를百丈 인모세와보시 늦다

幽靈斯可恠王命官屬休 幽深靈昊 야이

그미官屬은命 初聞龍用壯擘石摧林丘中

夜窰宅改移因風雨秋 처어의 드로니龍이 비

여林丘를물허리타고바미사는件을고 倒

懸瑤池影屈注滄江流 上句는 흐트그르에靈

江人 흐르노모리 香구워오브어오 늦다



莫能儔

은가짓祥瑞 一盛明 一신제오나니

坡陀金蝦蟆出見蓋有由

坡陀는不平負 一

標山 一호니라 一두두룩호호 一두

至尊顧之笑

王母不遣牧復歸虛無底化作長黃蚪

一玄宗 一辛

溫湯이어서늘揚國忠 一妻標山 一必叛호

一知國忠之謀호고 一而至호야늘帝 一見而

大喜호시고 一貴妃亦寵愛之호니 一還歸而反

故호云出見之有由 一라호여化作黃蚪 一

一라호다 一호님그이도라보아우으시고 一王母

一하어공잡들아나호나도로인업 一飄飄靑



色也 一라 琉璃는 水色 一靑瑩 一라 〇하는  
과 什과 어 드워 忽然히 매 치 다 러 나 〇거 리

萬頃 一나 〇디 琉璃 〇  
| 〇플 어 〇뎃 는 〇듯 도 다 琉璃汗漫泛舟入事殊

興極憂思集 〇  
〇니 어 리 다 〇러 어 〇興 一〇장 〇하 니

시름 도 완 〇  
〇디 몬 나 다 〇 〇麗作鯨吞不復知惡風白浪何

嗟及 〇  
〇니 러 나 〇여 고 래 〇속 규 물 〇도 아 디 〇못 〇하 리

로 소 나 〇모 디 단 〇분 롱 과 〇흰 〇물 〇거 리 〇  
〇연 어 는 〇嗟 〇喫 〇호 들 이 〇츠 리 〇 〇主人錦帆相

為閑舟子喜甚無氛埃 〇  
〇主人 〇은 〇指 〇峯 〇參 〇하 다 〇  
〇主人 〇錦 〇〇로 〇호 〇

빛 〇듯 〇큰 〇서 〇로 〇為 〇하 야 〇퍼 나 〇비 〇달 〇하 〇  
〇사 〇루 〇미 〇기 〇고 드 트 리 〇업 도 다 〇 〇鳧 〇鷺 〇散 〇亂

棹謳發絲管啁啾空翠來

울려 드는 허허여 벗  
고 빛히 는 놀애나

고絲管 | 수오고빈프  
은거시나아오늦도나

沉竿續蔓深莫測菱

葉荷花淨如拭

言用竿蔓言야測水之深也  
라○머를두며너추를

니어도기피를測量티물하리로소나알  
암남과道人곳패조호미스온두하도나宛

在中流渤海清下歸無極終南黑

言漢陂也  
如渤海也

이라○은가온대渤海물고듯하되宛然하  
이슈니아래로그지입사가나終南山이거

어하半陂以南純浸山動影囊窈冲融間窈

冲漱은皆言水深하다○陂로半안이南너  
은다외홀좀벗나니뒤닌그르에囊窈冲漱



호수이 船舷眞夏雲際寺水面月出藍田關

가나水面에다 리藍田關에付는다 此時

驪龍亦吐珠馮夷擊鼓群龍趨馮夷는河伯

兩聯은皆言馭波人景物也이라○이詩기

고문龍一湘妃漢女出歌舞金支翠旗光有

無金支는樂器上飾이라○湘妃漢女의니

락이시라엎스 咫尺但愁雷雨至蒼茫不曉

神靈意言此與龍居로相去一咫尺이니恐

예 오직雷雨 | 올가시름하노니 아  
라하야神靈의브들아디무하리로다 少壯

幾時奈老何向來哀樂何其多  
地 | 어드니天

비치다르니向來엇所哀 | 오이우고나리  
물가장노니向來엇所樂也 | 라○저은

저근언마맛희니오늘구매엇대하려요  
向來에슬프며즐거우니즈모하도다

### 漾波西南臺

高臺面蒼波六月風日冷  
노고臺 | 프른波  
水를面하얏나

六月에브근매나 薰葭離披去天水相與永  
리서늘하도다

과리쓰레시가나하늘 懷新目似擊接要  
과를외서르다못기도다

心已領 셋사할수 광호다 누비네 분듯고 조인 사할相接하야

마연저 仿像識敎人空蒙辨漁艇 仿像은不 明自

空蒙은 若無而空 하며 若有而蒙 하야 辨也 一라 ○스므시 敎人을 알오空蒙하교

기잡는 비를 錯磨終南翠顛倒白關影 終南 白關

은 潘山名이니 在長安하야 終南山人 프른리 처섯 큰이 고 白關山人 그르메 갓고

로드렛 嶺峯增光輝素陵惜俄頃 增光輝는 俄頃

프레드니 비치면 편히 더울시라 ○노곤 빛 비치덕으니 陵犯하야 登고 暮져 근덧도

오라 勞生愧嚴鄭外物慕張那 人生 只비

土 寺 三

子陵과鄭子真을 붓그리고萬物을 밧  
사모 불 飛良과 邵曼容을 思慕하노라 世復

輕驪駒吾甘雜鼯鼯 言世人輕棄賢才故

○世人 一 任五호로 爲가 的야 이너기 노라  
내며 구리 서라 여 앓겨 유를 돌히너기 노라

知歸俗可忽取適事莫並 言知歸山林호니 世俗之累를 可忽

이노取適於心則凡事 一 無可並於此者 一  
라 ○ 갈디 爲아 로니 世俗을 어루모던히너

기러로 다모오 매마 조물 水 身退豈待官老

來者便靜 모이 물러가면 엇더며 슬호문기

靜호문 便安 况資羨矣足庶結茅茨迥 言此地



美荷人異縣杭稻供此屋言池水

既之利故로 歲 糶 而 供 此 屋 之 食 이 니 라 ○  
말 임 卽 達 則 다 是 可 勿 令 其 有 餘 矣

이 獲 矣 다 皇 天 不 無 意 美 利 戒 止 足 高 田

失 西 成 此 物 頗 豐 熟 言天意不使狼藉有餘

穡則類此水而必稔也 歲 或 不 熟 一 拉 豆 此 穡

라 警 戒 言 止 足 矣 是 利 焉 止 足 矣

히 도 이 가 는 不 淸 源 多 衆 魚 遠 岸 富 香 木

들 卽 上 可 否 기 하 도 다 獨 嘆 楓 香 林 春 時 好

顏色

楓香人牛프티 時節에 비치

南有漢

王祠終朝走巫祝也

巫祝 奔走祭漢高祖

祠廟 잇는 니아 다 다 歌舞散靈衣荒哉

舊風俗

靈衣는 神衣也 荒淫을 베풀

高堂亦明王魂魄猶正直不應空陂上

縹緲親酒食

노끈 지의 佐 不 근 님 그 이 거 시

深 우 회 아 라 하 淫祀自古昔

酒食을 親 近

非唯一川瀆

言 淫 祀 荒 淫 祭 祀

非唯一川瀆 言 淫 祀 荒 淫 祭 祀

보터 하느니 하느니 하느니 干戈浩茫茫地僻傷極目

干戈 一 해아 라 하 나 幽僻 은 平生江海興

遭亂身局促 局促 은 不得 伸 之 意 라 平生

구 페 트 노 타 駐馬問漁舟 躑躅慰羈束 을 위 고

기 잡 는 비 를 우 의 어 무 려 서  
다 의 어 들 고 물 을 관 동 하 느 라

萬丈潭 在同谷縣 하 나 리

清溪合冥冥神物有顯晦 神物 은 謂 龍 也

어 드 호 이 모 닷 나 神 奇 무 인  
가 시 나 며 수 므 여 호 이 잇 도 다 龍依積水蟠





見光燭碎거문다란 물이 튼 돌알 오물 큰孤

雲倒來深飛鳥不在外외리온 구루이 가 든

高羅成帷幄寒水疊旌旆노

遠川曲通노

流嵌竇潛洩瀨인내히 굽 구워 어 흘리로 이 통

造幽無人境發興自我輩幽深 혼자

告歸遺恨多將老斯遊음 업은 처

最도라가 노라 삼 호에 기 든 추 호이 하나將

閉箴螻脩鱗出入巨石礙다려갈아근비는 수잇는나나여  
 드로애큰돌히何當炎天過快意風雨會이  
 이재치위함箴亨앗는나어느적기더운하  
 늘늘앗나부름비모도매快히나라날고니  
 를사라이느적기더운하늘하디나인  
 거든부름과래앗모도매브들환히할고

泛溪

落景下高堂進舟泛回溪위디는히에노판나

오와희돈사誰謂築居小未盡喬木西위築

적다너르리오노판나吳西人遠郊信荒僻

秋色有餘凄

면드르르히眞實은 기출오幽僻하니

中도

練練峯上雪纖纖雲表霓

練練은白自라오하여

호닌

뜻부리우희누니오

童戲左右岸

弋畢提携

아허돈리左右人두들게셔노니그을와주살을다자뱃도다

翻倒荷菱亂指揮徑路迷

此는惡小兒의迷失道路호야指揮

之也

라오蓮과말와물두위터어즈得魚

已割鱗採藕不洗泥

고가를어디호야비느를버히고蓮은키야흔

人情逐鮮美物賤事已睽

言得魚而不食

藕也 一라 ○ 사근의 비단 鮮美 古詩 蘇若 夫  
나 物 半 早 賤 古 詩 亦 謂 之 也 古 詩 亦 謂 之 也

吾村霜琪姿異舍鷄亦棲 우리의 마을은  
양지 霜 盛 故 曰 也

문지희도 蓬條欲何適 出處庶可齊

이 是 出 仕 詩 蓬 條 欲 何 適 出 處 庶 可 齊

出處 蓬條 欲何適 衣上

見新月霜中登故畦 뜻이  
가 온대 넷이러므로

汚醪初自熟東城多鼓聲 時에  
有東

之亂 京나라 ○ 흐린 수리 처엄너 구르  
로 브 러 東城에 사호 맺 북 소리 하 도 다

張溪

當時浣花橋溪水纔尺餘

當時入浣花入下  
리에 서 잇습니

白石明可把水中有行車

此誌  
皆言

水淺之狀言尺○引  
월리 오습니 온 지  
○引 풀 하 분 가  
可 하 자  
秋夏

忽從溢豈唯入吾廬

此言水漲言尺○  
음과 오 습니 하  
忽然 하 습니

지니 잇 데 오 지니  
지 비 들 습니 디 오蛟龍亦狼狽况是鼈與魚

狼狽 二獸名이니  
相對而行호되  
失其一

○蛟龍 一佐어려  
우니 습니蛟晨已半落歸路



드록주제사는더스  
랑호문알와라

### 太平寺泉眼

招提憑高岡踈散連草莽

招提는佛寺也  
타○티리노프외

헤브택느니훤하야  
플서리에니엇도다

出泉枯柳根汲引歲月

古이운버덤풍블휘에쉬  
기러먹느니히드리오  
라도다石間見海

眼天畔縈水府

海水一地中○로쉬소사  
니는又흔서海眼  
라하니

泉脉 하나하속又水府에비  
사나나나라○풍스이에바  
문누늘보나하

巖又水府에廣深丈尺間宴息敢輕侮  
와니



피괴 丈尺 만흐스아 예편안히 靑白二小蛇

쉬여셔구퇴여업시워리아 幽姿可時觀 프르나와힌두적근비야의幽  
幽양조른어루時時에보리로

다 如絲氣或上爛熳為雲雨 실고든氣運  
시후오르면피

여구름과미피 山頭到山下鑿井不盡土 不  
다외는니라

土는기피파다아나후야도므리곳날사라  
○릿고드로셔릿아래니르리우를판물흔

니글다후다아 取供十方僧香義勝牛乳가저  
니하느니라

十方갓중을이받느니 善義 北風起寒文弱  
호이피져저라와더으니라

藻舒翠縷 北緯북극매치은水文니는  
보다라온말와은프른사라펫는

도다 明涵客衣淨 細蕩林影趣 본은기나그버 오손우려조

고고너리수고그르 何當宅下流餘潤 通藥

圃三春濕黃精 一食生毛羽 演精은章名食之長生호

너니라生毛羽는謂為飛仙也 一라오어는

저괴는리홀러가는디사라셔나문저주이

### 長江二首

象水會溶萬瞿塘爭一門 瞿塘은三峽之門

涪州萬州로 못나니瞿塘에 朝宗人共挹盜

賊爾誰尊

이름을 도마를로 朝宗하느니 盜賊가 잇디 곧 의는 다니 尊이라○

바를로 朝宗호문 사리이다 挾取하느니 盜賊아디는 尊奉하느니 다 孤石隱

如馬高羅垂飲猿

灑石 | 高 | 二十丈許 | 夏水 | 漲別溪而如

馬하느니라니 비 藤蘿를 자바드러서 飲水하느니라○ 외로 인 돌하오 그 옥하야 온 고

고노 巨 藤蘿번을 먹 歸心異波浪何事即飛

飛도라가고 저하느니 오문 說 浪와 다르 翻 거시니 오 矣 일로 곳하라 두위 잇느니

浩浩終不息乃知東極臨 浩浩는 水流 負 | 此水 | 必歸 |

東海하느니○ 浩浩하야 오 矣 에 天다아니 象 하느니 東極에 臨하야 必고 들아노라

流歸海意萬國奉君心

물흐르는은으리바를  
로가는는는디여萬國

의님음을奉戴  
는은이로다

色借瀟湘闊聲驅灩澦深

비츠瀟湘人녀부를발오소리  
는灩澦기픈디무리가낫다

未辭添霧雨

接上遇衣襟

霧雨의타우를아디아니  
니이을아옷가즐맛나낫다

### 瞿塘兩崖

三峽傳何處雙崖壯此門

兩崖一對峙  
中貫一江

之如門  
峽을어디를傳야니르니오두비엿이

門이健壯  
고도다 八天猶石色穿水忽雲根

雲根은  
石也

라 ○ 하 늘 해 드 러 도 호 허 려 동 이 치 오 으  
 를 들 위 드 러 도 문 드 시 구 룡 불 휘 르 다 猱  
 攬鬚髯古蛟龍窰宅尊 외 오 본 입 거 우 지 비 르  
 暗道羲和冬馭近愁畏日車 羲和 의 거 우  
 돌 해 어 가 오 나 허 든 슬 귀 두 羲和 의 거 우  
 위 탈 가 저 허 시 름 하 노 라

瞿塘懷古

西南萬壑注劼敵兩崖開 西南으로萬壑이  
 岷江從月窟來 岷江이

岷江從月窟來 岷江이  
 地與山根裂江從月窟來 地와山根이

方月從處一라 ○ 什 言 외 불 휘 와 다 吳  
 峽 餘 黛 削 成 峽에 餘 黛 削 成



연 비를 하야 비 리는 나라 ○ 오를 두 아 雲雨  
를 雜答 하 나 물은 거 든 비 든 노 을 警戒 하

라 니 天意存 傾覆 神功接 混茫 하 늘 든 업  
타 비 료 물 잇

아 니 鬼神의 영고 른 劫은 干戈連 解纜 行止

憶垂堂 垂堂은 謂坐堂外邊 一니 千金之子  
는 猶畏墮而坐不垂堂 一어늘 甫는

有乘舟之危 言은 서 사랑 하 리 라 ○ 干戈人什  
리에 나 어 빛 주 를 글 어 든 니 노 니 더 며 말 며

호미 堂人 고 애 안  
조 물은 사랑 하 노 라

澹澹

澹澹 既浚 孤根深 西來水多愁 太陰 澹澹 一  
하 아 吞

거외로 온 불휘기 프니 西人녀 그로 什오  
는 으리 하니 키어 드오 물시름하 노라 江

天漢漢鳥雙去風雨時時龍一吟하하하

나새 들끓는 라가고 비름비에 舟人漁子歌

田省估客商胡淚滿襟 이 는 으리 어 려운 줄

름과 고기 잡는 사근은 놀래 팔러서 어리 를  
도로 허보고 흥정 할 나 그네 와 흥정 할 되느

는 으리 뜻기 제 寄語舟航惡年少休翻鹽井

橫黃金 言翻賣井鹽而橫得黃金 必覆

름더 브러 마를 브러 노나 鹽井을  
두워 이어 黃金을 橫得하 디 말라



渡江

春江不可渡二月已風濤봄이 이르러 물이 높고

不可渡

舟楫欹斜疾魚龍偃卧高배와 노가 기울고 물결이 높고

魚龍偃卧

龍龍은히즈러려려떨리가나나魚魚渚花張素錦渚에 꽃이 흰錦을 펼친다

汀草亂青袍汀에 풀이 푸르다 又고 錦錦一一 帟帟고 물고이

戲問垂綸客悠悠見汝曹놀고 물고이를 물고이들 만나서

汝曹

문노라悠悠히어쇼

을너희무를보노라

巴西驛亭觀江漲呈竇十五使君





又呈竇使君

向晚波微綠連空岸

脚青

나조호向空岸

가나나虛空에나은  
두들기프르도다

目兼春有暮愁與醉無

醒

은술醉喜과다못호야일저기업도다  
는호는봄과兼호야나조리드외는나사르

漂泊猶杯酒踟躕此驛亭

이러보티도호애오  
히려술잔을억노

나이驛人亭子  
에머므로라

相看萬里別同是一浮萍

萬里

에여희여도호물서르보니호  
가리호아호丈浮萍一又도다

江漲

江發蠻夷漲山添雨雪流

夷蜀地水之源一皆出

이蠻夷에 하나 말었는니 외해는  
雨雪 하나 가흐로이디오 못다

大聲吹地

轉高浪蹴天浮

큰소리는件해물여음고노  
문물거흔하늘흔박차벗도

斗魚鼈為人得蛟龍不自謀

言水一漲溢故로  
魚鼈蛟龍이皆失

勢也이라오고기와재래는사리의어들거  
사드외야고蛟龍은재모물외하디못하듯

斗輕帆好去便吾道付滄洲

그로도야온빛듯  
가로의야온빛듯

도호니내道를  
므레보류리라

江漲

江漲柴門外兒童報急流

쉬므로 흐른 문 밖과  
기름이 밀렸거늘

아하 들히 열리다  
러가 을 알외는 다

下床高數尺倚杖浚中洲

平床에 누려 보니 노파 두어 자히 오막대  
를 지여 쉬슈니 가몬 더 몹고 의 짐는다

動迎風燕輕搖逐浪鷗

微細히 비렁맛는 저  
비를 위우고 가의야

이 물결 쫓는 곧여  
기름이 어는다

漁人縈小楫容易拔船頭

拔船頭는 開船而行也  
라○고 기 자블삭  
르이 조고 맛비치버으  
러 쉬슈어 빚어리를

예허가  
는다

臨邑舍第一書一至  
苦雨에 黃河一

泛溢特隄防之患 簿領所憂○ 因

寄此詩特用寬其意○

二儀積風雨百谷滿波濤○ 二儀是天地也

聞道洪河拆遙連滄○ 비사하시니 온릿고리

海高○ 하니라 늘드려나 큰고리 이씨리 職司

憂悄悄郡國訴嗷嗷○ 職司는當職司水之官

舍第卑棲○ 職司는시름하야悄悄하고郡

邑防川領簿曹○ 지빛아의棲止함고을히

刊領히 尺書前日至 版築不時操 版築은以 版으로夾

土築之나言 版防之後 一라 ○자맛글위리

도 難 倣 龜 鬣 力 空 瞻 烏 鵲 毛 穆王 一 至 九 江 一 為 橋

하 여 牛 女 渡 河 州 烏 鵲 一 成 橋 言 此 是 言 難 用 是 物 言 야 為 版 防 也 一 라 ○ 龜 鬣 의 히

를 比 로 이 어 려 우 며 烏 鵲 의 一 燕 南 吹 吠 畝 濟 一 燕 南 吹 吠 畝 濟

土 浚 逢 蒿 燕 南 濟 上 邑 皆 地 名 一 一 黃 河 一 燕 南 安 받 아 려 에

무 리 木 잇 고 濟 上 언 다 螺 蚌 滿 近 郭 蛟 螭 乘

九 臯 다 二 리 浚 溢 高 邑 龍 尼 呂 一 라 ○ 龍 王 一 城 郭 에 古 九 臯 一 蛟 龍 一



아흥분두들

글렀도다

徐關深水府礪石小秋毫

徐關은齊

地也 | 라言礪石山 | 波於水 | 其小 | 如秋毫也 | 라○徐關은기픈은아으리드

외앗고礪石은조고야 **白屋留孤樹青天失**

**萬艘** 茅屋은며니기늘나오있고비는靑天人스이에며갈시라○서지빈외로

원남기잇고프른하늘 **吾衰同泛梗利涉想**

**蟠桓** 梗은들구리라蟠桓은在東海中山은南言老年羈旅一如深梗然은

欲乘水漲言야至蟠桓之仙境也 | 라○衰老은야岬도나늘들갈과도나도하건

나가물蟠桓잇는 **倚賴天涯釣猶能掣巨鰲**

土寺

龍伯人十丈大其意也 | 能히 물러나고 연  
 句는 乃用寬其意也 | 能히 물러나고 연  
 ○하느니 功은 지어 처가 그 연오히려 能히 온  
 바가 부를라

天池

天池馬不到嵐壁鳥纔通  
天池는言高在山上也 | 라 ○天池

벽에 서야 라스미 차가 낫다  
벽에 서야 라스미 차가 낫다

抄曾波白石中  
구름 그레잇고 썸 썸 인 물기

은디로 다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는 蕭瑟也



獻寶宮

張騫 | 天河 | 織女 | 河伯 | 人  
돌출가 | 저오나 | 周穆王 | 河伯人

宮 | 伯宮也 | 此 | 天池 | 天 | 池 | 典  
○ 외 | 돌출 | 문고 | 저오

의 | 珍寶 | 九秋 | 驚鴈 | 序 | 萬里 | 狎  
宮 | 九秋 | 驚鴈 | 序 | 萬里 | 狎

漁翁 | 九秋 | 萬里 | 狎  
九秋 | 萬里 | 狎

狎 | 更 | 是 | 無 | 人 | 處 | 誅 | 勞 | 任 | 薄 | 躬 | 之 | 處 | 幽 | 僻  
更 | 是 | 無 | 人 | 處 | 誅 | 勞 | 任 | 薄 | 躬 | 之 | 處 | 幽 | 僻

可以 | 誅 | 鉏 | 茅 | 菜 | 之 | 勞 | 躬 | 之 | 處 | 幽 | 僻  
誅 | 鉏 | 茅 | 菜 | 之 | 勞 | 躬 | 之 | 處 | 幽 | 僻

히 | 로 | 오 | 나 | 온 | 모 | 문 | 으 | 던 | 하 | 나 | 구 | 리 | 라  
히 | 로 | 오 | 나 | 온 | 모 | 문 | 으 | 던 | 하 | 나 | 구 | 리 | 라

登白馬潭

水生春鏡沒日出野船開

무리나 봄빛 주리  
다 보니 허튼 거늘

리 햇비 물여  
러가 노타

宿鳥行猶去花叢笑不來

笑不  
來

비타다가 너 읊고 지물러가  
는 듯할시라  
○ 새지거늘 터오히러가  
나 귀별거늘 나

다오타아니  
호를 웃노라人人傷白者處處接金杯

현아리 물슬는 너  
다 술 잔 슬相接호라

莫道新知要南征且

未回

浦(荆衡)으로 가도  
라오다아니 할랄  
○ 새사피는 사  
리물속 쥘업사  
디기

니라○ 새러아는  
사리이조오리  
외다하야  
니라디아물디  
니南으로가도  
라오다아니

호리





來去飛

巴州人아하늘비출이어기우서디  
나가고물고고기물드러오막가

關中勝事可腸斷關州城南天下稀

關中關州城南天下稀  
關中關州城南天下稀

關州城南天下稀  
關州城南天下稀

建都十二韻

實應元年以京兆府為  
上都河南府為東都鳳翔

府為西都江陵府為南都  
大原府為北都

蒼生未蘇息胡馬半乾坤

百姓一似디  
吳호

議在雲臺上誰扶黃屋尊

黃屋尊  
天子人



車蓋니言雲臺아諸公一議國事하建都  
古하니誰能扶持王室也오讒非急務也

라오議論호이雲臺人이회이인建都分魏闕  
니니뒤黃屋人等을扶持할고

下詔闕荆門荆門은指江陵하다오都邑을  
하어어魏闕을노화詔書를노리

와荆門에恐失東人望其如西極存此는江  
어는다

陵則關東西蜀一阻隔也一라오東쪽사  
미는다오물일흔가건노니그西極년安存

호덴엇時危當雪耻計大豈輕論此는南江  
더는고

陵之議無益於時也一라오時節一危亂  
저는고반下기붓그러우물시술다니하아

미크니엇데가비雖倚三階正終愁萬國翻  
야하議論하리오

上卷

三階三天之三三合三階一正正言正天天下下

大平大言大此此言言이이제제에에建建都都호호이이비비루루

天天下下로로便便安安也也有有言言然然偏偏在在一一方方一一正正

未未能能鎮鎮定定萬萬國國也也一一正正言言然然偏偏在在一一方方一一正正

國國一一正正言言然然偏偏在在一一方方一一正正

綱綱辱辱殊殊恩恩魏魏人人辛辛毗毗一一帝帝裾裾而而諫諫言言此此

此此事事而而見見賤賤言言不不加加東東諫諫也也一一言言諫諫房房

言言不不能能如如賈賈誼誼之之諫諫而而憐憐原原之之死死也也一一言言

永永負負漢漢庭庭哭哭遙遙憐憐湘湘水水魂魂文文帝帝時時所所愛愛也也

一一言言不不能能如如賈賈誼誼之之諫諫而而憐憐原原之之死死也也一一言言

一一言言不不能能如如賈賈誼誼之之諫諫而而憐憐原原之之死死也也一一言言

一一言言不不能能如如賈賈誼誼之之諫諫而而憐憐原原之之死死也也一一言言

一一言言不不能能如如賈賈誼誼之之諫諫而而憐憐原原之之死死也也一一言言

一一言言不不能能如如賈賈誼誼之之諫諫而而憐憐原原之之死死也也一一言言

一一言言不不能能如如賈賈誼誼之之諫諫而而憐憐原原之之死死也也一一言言

漢庭 옛 우루물 가리 저 버리고 窮冬客江劍  
湘水 옛 님슬 아라 하슬 노라

隨事有田園 江劍은 指蜀을 다오기 尹거으  
레 江劍에 上 工 外 5 의 요니 사

園을 뵈노라 風斷青蒲節霜埋翠竹根 上

는 喻衰老하고 下句는 喻守節호니 라오  
근 은 프른 줄 杖이 되 亂 又 高 寺 리는 프른 杖

불 휘를 무 衣冠空穰穰關輔久昏昏 穰穰은  
衆多也

亂也 라 關輔는 關中 三輔이니 言長安에 有寇  
亂也 衣冠은 衣冠이니 亦 絶 業 시 하니 關輔

오래 드 願枉長安日光輝照北原 此는 言  
時에 太

源河北之地 未定호니 亦 絶 業 시 江陵에  
建都마 르 시 고 모로며 鎮定河北을 디 니 라

○願宮長安人희를구  
퍼비출北原에비취쇼셔

### 江陵望幸

雄都元壯麗望幸歆威神雄都上指江陵

신  
| 본뒤로壯麗하니문드신威神하  
| 님그며臨幸하쇼모니라矣다  
地利西

通蜀天文址照秦風烟舍越鳥舟楫控具人

地利는西人녀그로蜀에通호며天文은北  
으로秦에비취여사며風烟은越人세로이

구어시야리는吳人사未枉周王駕終期漢

武巡周穆王과漢武帝다巡幸하리다○周人  
금車駕를구려오다아니하시니只

本朝漢武帝人遊  
守를期望호다  
甲兵分聖旨居守付宗臣

時에吐蕃一陷京一  
고郭子儀로為京城留守호다  
幸陝호시

님或此디는환호니  
居守호  
早發雲臺仗恩

波起涸鱗  
言救南方窮困之民也  
一라○일

외고기글니르  
와다내호付

峽隘



聞說江陵府雲沙靜渺然  
江陵府에 구름과

아○라호니라  
白魚如切玉朱橘不論錢

言江陵之景言니라○한景고기츠至은비  
 한되고블근橘은비등議論아니라하느니라  
 水有遠湖樹人今何處船人은甫一有謂一  
 樹之景言나我一今在何處오葉未即姓之  
 辭一라○으랜언口로옛古기앗느니라사  
 是이제어뵈미 青山各在眼却望峡中天此  
 엇앗가나오 言今在峡隘之中言야但見青山與天而未  
 能往江陵也一니라○프른외하제여곰  
 녀앗느니라도호峡中  
 옛하늘을닐라노라

秦州雜詩十七首

滿目悲生事因人作遠遊  
上句는州生活  
 논이리다슬플시

라 ○ 누네고든가 보논 사논 이글 슬노 나  
사 르 문 회 흥 야 어 리 와 노 로 물 지 오 라 遲

回 度 隴 怯 浩 蕩 及 關 愁 遲 ○ 回 行 不 進 負 遲

나 와 저 고 환 출 하 關 에 水 落 魚 龍 夜 山 空 鳥  
미 처 와 처 시 름 고 노 라

鼠 秋 魚 龍 川 鳥 鼠 山 一 皆 在 秦 州 言 中 ○ 모  
른 魚 龍 人 바 의 僻 오 외 言 爲 鼠 人 口 是

도 西 征 問 烽 火 心 折 此 淹 留 西 人 曰 西 征 問 烽 火  
로 녀 烽 火

를 못 고 모 으 미 처 거  
녀 예 와 처 어 모 노 라

州 圖 領 同 谷 驛 道 出 流 沙 同 谷 是 縣 名 一 也  
流 沙 是 地 名 一 也

○ 圖 誌 是 同 谷 是 縣 是 地 名 一 也  
니 驛 人 길 宣 疏 沙 로 十 가 矣 矣 降 虜 無 千

七 寺 十 三

帳居人有萬家

來降言되는는은帳一萬家

中도馬驕朱汗落胡舞白題斜

朱汗是即汗血一도題는

額也 | 라 | ○ | 리 | 곧 | 외 | 나 | 붙 | 은 | 年  
고 | 되 | 추 | 붙 | 으 | 나 | 흰 | 나 | 아 | 히 | 비 | 숙 | 하 | 도 | 다 |

少臨洮子西來亦自誇

臨洮는은고을일후이  
라○나저은臨洮人

사  
任 | 리 | 미 | 서 | 인 | 터 | 그 | 로 | 지  
와 | 인 | 제 | 자 | 랑 | 하 | 듯 | 다 |

鼓角緣邊郡川原欲夜時

鼓角소리는은  
바라는은口을히로

秋聽殷地發風散入雲悲

고  
나 | 리 | 하 | 는 | 나 | 빠 | 로 | 다 | 秋 | 聽 | 殷 | 地 | 發 | 風 | 散 | 入 | 雲 | 悲  
此는皆言角聲也 | 라 | ○ | 고 | 은 | 히 |件 | 해 | 우 | 러  
나 | 는 | 소 | 라 | 울 | 드 | 로 | 나 | 리 | 큰 | 매 | 흐 | 러 | 구 | 루 | 에 | 드



도슬 프 抱葉寒蟬靜歸林獨鳥遲 此正真賦 角鼓景句

하 니 라 ○ 니 플 아 벗 는 서 는 훈 위 야 미 피 외  
하 고 수 플 로 가 는 외 로 윈 새 날 회 야 는 닷 다

萬方聲一槩吾道竟何之 戎馬之際에 處處

吾何往也 오 嘆問之 鮮 一 라 ○ 萬方에 소 리  
훈 가 지 로 소 니 네 道 는 미 차 매 어 드 리 가 리

노

城上胡笳奏山邊漢節歸 城우 회 되 뜻 지 를

節 가 지 니 防河赴滄海奉詔發金微 金微는 龍右地

名 一 니 言 防河之士 一 自金微而發也 一 라  
○ 河에 防戍하 라 滄海로 가 는 니 詔命을 받

不不와와舍舍微微로  
士士苦苦形形骸骸黑黑林林疎疎烏烏歟歟稀稀  
軍士

로로외외나나나나서서얼얼구구리리검검고고수수프프리리那那堪堪往往來來戍戍恨恨

解解鄴鄴城城圍圍  
安慶緒亂鄴城에圍후앗다가잡

戍戍케케흔흔이이를를호호훈훈시시라라○  
가며오며하야防

가가에에여여들들이이  
를뉘웃노다

莽莽莽莽萬萬重重山山孤孤城城山山谷谷間間  
기촌萬重인외해

로로이이無無風風雲雲出出塞塞不不夜夜月月臨臨關關  
이오不夜는

城城名名一一니니皆皆在在秦秦州州하하다다○  
無風엔쿠루이

屬國歸何晚樓蘭斬未還

蘇武一為典屬國  
라傳介子

使樓蘭言야斬其王者而還言니此言使  
異或者一時未還也라屬國은도라고

미엇테느즈니오樓蘭王물  
비혀도라고오다무하얏도다烟塵一長望衰

颯正摧顏늘기와드드러서호면기리부라고  
출물어디유라

聞道尋源使從天此路回漢人張騫一乘槎  
尋黃河言야至天

河言니라○너르거늘드로니黃河人查호  
것던使者라늘호호조하이길호로도라고

라牽牛去幾許宛馬至今來張騫一自西域  
來言大宛에有

善馬一라고야늘武帝一伐取之호나라○  
牽牛는빙으로이언어만호리오大宛人

리이제나르  
리오낙다  
一望幽燕隔何時郡國開時安史

之亂에幽燕諸郡未平也  
라온딘幽州燕州未平也  
즈음츠니어느저기

郡國이오  
東征健兒盡羗笛暮吹哀東征그

호머健壯호아히다가니되더  
히나조히부는소리슬프도다

今日明人眼臨池好驛亭  
오늘나래사루의  
누늘번게흔거슨

驛人亭子  
로다  
叢篁依地碧高柳半天青

별기옛더는사하누  
버드론하늘해半만티  
틸어프르도다  
稠

疊多幽事喧呼闕使星  
漢人李都傳에帝遣  
使行州縣어늘有



寂靜 하디 正히 五고  
맛다 吳門 을 다 노라

蕭蕭古塞冷漠漠秋雲低 蕭蕭 하네 日 이 서  
늘 하 나 아 두 히 고

은 子 루 아 七 黃鵠翅垂雨蒼鷹飢啄泥 鵠은  
족 하 도 다 六

은 늘 개 비 에 드 렷 고 프 른 薊門誰自北漢將

獨征西 上 句 古 言 燕 薊 也 兵 旣 一 未 平 一 是 下 句 古 言 伐 吐 蕃 也 一 薊 門 也

北 上 句 古 言 燕 薊 也 兵 旣 一 未 平 一 是 下 句 古 言 伐 吐 蕃 也 一 薊 門 也 不意書

生耳臨衰厥鼓聲 書 生 의 귀 처 늘 기 처 사 호  
뜻 音 소 리 를 아 처 라 드 른

고 들 터 가 디  
아 나 호 라 가 디

傳道東柯谷深巖數十家  
東柯谷 一在秦州 傳傳으로

對門藤蓋无映竹  
對門 藤蓋 无映竹

水穿沙  
門을對호는藤蓋는다 對門 藤蓋 无映竹

瘦地翻宜粟陽坡可種瓜  
瘦地 翻宜 粟陽坡 可種瓜

舟人相近報但恐失  
舟人 相近 報但 恐失

桃花  
借言漁人之迷桃源事也 桃花 事也 〇 비문사

萬古仇池穴潛通小有天  
萬古 仇池 穴潛 通小有 天

萬古仇池穴潛通小有天  
仇池 穴 潛通 小有 天









牆집 못기 슬겻 비는 어 즐러 이 帳은 지 지 고  
對했 구 루 문 는 는 지 담을 건 너 가 는 다

鸞鸞 鷄 窺 淺 井 蚯 蚓 上 深 堂 蚯 蚓 一名 오 蛟 壇

久江 湖 一 謂 之 歌 女 一 尼 라 此 是 皆 言 積 雨  
陰 而 然 也 一 라 〇 가 아 오 디 는 여 든 우 으

를 엇 보 고 것 위 는 기 車 馬 何 蕭 索 門 前 百 草

長 小 說 위 와 물 왜 조 모 과 외 하 나 門  
알 피 온 가 짓 프 리 기 렷 도 다

地 僻 秋 將 盡 山 高 客 未 歸 客 是 南 一 라 〇 付  
幽 僻 處 된 고 은

나 小 說 아 다 〇 는 나 외 하 노 문 뒤 付 塞 雲 多 斷  
그 배 도 다 가 디 못 하 었 노 라

續 邊 日 少 光 輝 小 說 하 고 기 잇 히 는 비 치 적 도 다  
하 고 기 잇 구 루 문 그 츠 며 나 우 아

警急烽常報傳聞檄屢飛

檄은 木簡이니 檄軍書也 | 라有急

則 押以 鷄羽 宣하니 謂之 羽檄 | 라○ 警急

宣이 를 烽火 | 長常 알외니니 羽檄 | 不 至

나로 是 傳傳 | **西戎外甥國何得近天威** 外甥은 女

婿 | 니 肅宗 | 寧國公主로 下嫁回統 | 고시

나라 | ○ 西戎은 外甥의 나라히 어시니 옛 때

시러 公하늘 威嚴 | 에 갓가 이오늘고

**鳳林戈未息魚海路常難** 鳳林魚海는 管地

之 亂 | 고니라○ 鳳林에 사호이 곳디 아 | **候火**

나고고 魚海엔 長常어 렴도다 | **雲峯峻懸軍幕井乾** 幕井은 우물 우홀고리

와심시라○ 候望고늘

보른 구룡인 옷부리 노끈 뒤 잇고軍을 風連  
히드러가애 집지은 우드리도다

西極動月過北庭寒 北庭은 北方也 | 다○  
北庭은 西域에 니어워

오드르 北庭으로 다 故老思飛將何時議築  
나가시늘 ㅎ도다

壇 李廣은 匈奴 | 號曰飛將軍 | 다 ㅎ다 漢  
人高祖 | 築壇 ㅎ야 拜韓信為大將 ㅎ니

라○ 배人늘 근자르 이늘 將軍을 스 랑  
ㅎ니 니어느 저이 築壇호 是 議論 ㅎ고

唐堯真自聖野老復何知 言君 | 自聖則忠  
言은 不關 ㅎ니

甫 | 微言 ㅎ야 諷 帝 宗 也 | 다○ 唐堯 | 真  
實로 卮 聖人 | 로라 ㅎ시늘 니리 ㅎ늘 그니

노 任으 ㅎ이 曠樂能無婦應門亦有兒 曠는  
所賣

土詩十三

反言니日乾也 | 라 ○ 藥을 물오리는能히

거지비업스리아門의付손디답호언任아

히잇藏書聞禹穴讀記憶仇池會稽山에有

도다藏書之所 | 라甫 | 讀仇池記而欲遊其處

也 | 라 ○ 글일날맛는付喜禹穴을 들고記

를닐거付仇池 | 為報駕行舊鶴鶴在一技 | 甫

를스랑言노라 | 寄寓秦州 | 如鶴鶴의棲一枝之安也 | 一과

○ 駕駕行列잇잇번더브러為言中니르노

다범새흐가지

에안자노라

龍門 龍門山 | 在河

南縣言니라

龍門 橫野新驛樹出城來

出城來는나모를

驛으로付門의내

龍門 橫野新驛樹出城來

驛으로付門의내

龍門 橫野新驛樹出城來

驛으로付門의내

龍門 橫野新驛樹出城來

심거실시라 ○龍門이위해빛거구 첫氣色  
나니驛옛것는남근城으로나오듯다

皇居近金銀佛寺開 有佛居는指東都言다山  
有佛寺言니金碧一照

耀言니라 ○氣運과비촌님금사르사는  
뒤가가오니金銀은佛寺一여러도다 往

來時屢改川陸日悠哉 悠는長也  
여오애時節一라○가

改變言는나리기도다 相閱征途上生涯盡

幾回 來는더길우회는니는사르이엇비는  
來는더길우회는니는사르이엇비는

나는길우회서르보노사르  
며사로문엇디위에르출고

夔州歌九絕句

中巴之東巴東山江水開闢流其間中巴人東巴人

東人외해고르갓으리開闢白帝高為三峽

鎮夔州險過百牢關百牢關은在梁州고니白帝城은노과三

峽엇늘러슈미드외갓고夔州人險호은百牢關에넘도다

白帝夔州各異城蜀江楚峽混殊名白帝와夔州

제여공城다르니蜀江과楚峽英雄割據

非天意霸王并吞在物情公孫述白帝

英雄의仲호내히브터슈은하공孫述다니시니霸王의외화승州슈은사리인브터



잇나  
나라

群雄競起向前朝王者無外見今朝指隋代

之亂言나라無外言德化遠及也

○最英雄나라無外言德化遠及也나라

王者의잇업수물오나라比訝漁陽結怨恨元聽

聒나라太의호러로다나라比訝漁陽結怨恨元聽

舜日舊箏韶比是近也나라箏韶舜樂名

聽音樂言中息窳至矣나라終乃昔思而

及也나라○漁陽人사라의怨恨을의자介

를오스나라의잇음노나라본되로舜

日잇잇箏韶人사라를듣다나라

赤甲白盞俱刺天問閣繚繞接山巔赤甲山

山과대다하튼을변이는기  
히버므러의대는도는楓林插樹丹

靑合樓道重樓錦繡懸는斗는抽

는天고두는과는는天고두는과는

灤東灤西一萬家江北江南春冬花灤은은

江南엔가을과보이엇은고다背飛

鶴子遺瓊藥相趁兎離入蔣牙는은

하르뜻은을학사기은蔣人하리로드러

다

東屯稻畦一百頃北有澗水通青笛東屯地名

라 ○東屯人며 심근이 겸一百頃에 지니 귀 잇는 시 벗 으 리 프 른 임애 수 못 흐 르 듯 다

晴浴狎鷗分處處雨隨神女下朝朝海上翁

나 겁 거 놀 鷗鳥 | 來 親 狎 鷗 兮 狎 鷗 | 라 ㅎ  
나 라 ○ 汎 汀 付 津 浴 ㅎ ㅎ 狎 鷗 ㅎ ㅎ 곳 呀 다 ㅎ

화 잇 고 비 는 神女 를 조 차 아 ㅎ 마 다 ㅎ 리 ㅎ 다

蜀麻吳鹽自古通萬斛之舟行若風若 風 也 | 라 ㅎ

○ 蜀 人 삼 과 吳 人 소 금 販 녀 로 브 러 相 通 ㅎ  
나 나 一 萬 斛 ㅎ ㅎ 비 오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長年三老長歌裡白晝攤錢高浪中浪人

本言一

把蒿 하야 相水道者曰長年 오 正稍者曰

三老 하야 長은 上聲 하야 攤錢은 蜀人의 돈

던 하야 一曰 說憶 하야 一曰 射意 하야 一曰 射數

하 하야 一曰 說憶 하야 一曰 射意 하야 一曰 射數

나 하야 長年과 三老 射意는 射數

憶昔咸陽都市合山水之圖張賣時巫峽曾

經寶屏見楚宮插帶碧峯疑 甫 言 帶於畫

니 今 對碧峯 하야 疑是舊所見之畫也 하야 라

○ 小 堂 軒 殿 咸陽 人 都 邑 也 故 曰 都 也 外 曰 峽

물 峽 也 故 曰 峽 也 故 曰 峽 也 故 曰 峽 也 故 曰 峽 也

牙 風 也 故 曰 牙 風 也 故 曰 牙 風 也 故 曰 牙 風 也 故 曰 牙 風 也

矣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矣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故 曰 疑 心 也





花留客晚楓樹坐猿深 고고견어므갓심남

권안 杖屨 다 비 고고견어므갓심남

기피 잇도 다 고고견어므갓심남

病劣 負 다 甫 고고견어므갓심남

月 俸 京 다 다 고고견어므갓심남

이 京 노 니 諸 侯 고고견어므갓심남

不 還 金 을 주 다 고고견어므갓심남

### 黃草

黃草峽西船不歸赤甲山下行人稀 黃草峽

州 京 고 赤 甲 山 은 在 夔 州 京 다 이 亂 京 야 立

을 니 르 니 라 ○ 黃 草 峽 西 人 稀 京 다 라 오

다 아 니 京 다 니 赤 甲 山 人 야 秦 中 驛 使 無 消

래 京 不 歸 京 다 京 다 京 다 京 다 京 다 京 다 京 다 京 다

息蜀道干戈有是非秦中 麟으로 蜀道

애사호문을하여 萬里秋風吹錦水誰家別

淚濕羅衣萬里에 錦水를 부는

오세저 莫愁劍閣終堪據聞道松州已被圍

松州被圍는 指往日 止蕃之事하니라 此는

言勿慮劍閣之險 一為叛逆의 所據이니 雖

松州 一在劍閣之內라도 已被圍라 不足恃

南楚

애 依據 京 廣 江 湄 가 서 름 아 른 더 니 니 러 기



南楚青春異暄寒早

南楚 이 일대 分

南楚 이 일대 無名江上草

隨意

嶺頭雲

일홍업스난 正

月蜂相見非時鳥共聞

正

杖藜妨躍馬不是故離群

非故意

非故意

南極

南極青山象西江白谷分南極에 푸른모하하고西江엔 흰고

도리는 학 古城踈落木荒戍密寒雲넋城엔 디는 남기 첫

과고거촌防戍호는던 什 歲月蛇相見風飄날고구촌의塞호도다

虎忽聞호호래비야물長常보리로소이부

다 近身皆爲道殊俗自人群모애갓가온가

로 牛 風俗호호도다 牛 睥睨登哀柝蜚弧근호오다호風俗호호도다

照夕 照 睥睨 城上女牆 柝 登 哀柝 蜚 弧擊之호호라登是名

○ 睥睨 怨 亂 離 多 醉睥睨엔 슬픈擊柝 1 울갓고卷



卷之十

...

...

...

...

...

...

...

神聖

分類杜工部詩卷之十四

樓閣古詩四首

律詩三十五首

越王樓歌

繇州州府何磊落顯慶年中越王作

顯慶二年高宗人

年號

一作太宗人

子越王貞

為繇州刺史

字尼一作起也

一作

繇州人州府一不

顯慶初少子

越王孤城西北起高樓碧

瓦朱甍照城郭

郭在城西北北起高樓

와 불근집기슬기

슬기

樓下長江百丈清山頭落

城郭에 비취엇도다

樓下長江百丈清山頭落

日半輪明

百丈은 물기 피로 나리니라 ○樓叶

此句는 半을

君王舊迹今人賞轉見千秋萬

古情

君王의 옛 자취를 이 옛사극이 賞玩하

西閣曝日

禦列倦玄冬負暄嗜飛閣

冬日에 冥故로曰玄冬

口라 ○ 서늘호물玄冬은 又가하다니 義和

流德澤顛頊愧倚薄

義和는 神也 御 顛頊

對者也 顛頊 顛頊은 義和 德澤을 頊의 毛髮具

自和肌膚潛沃若

沃若 은 더운 양 자른 나리니라오 미러 터라 다 절로

溫和 亨니 슬히다

太陽信深仁衰氣歎有托

太陽은 日也 一라오 하진 실로 仁愛 호이 기 프니 늘근 거운 에 든 드기 부투이 잇노라

歎傾煩注眼容易收病脚

티운 氣運 一 비취 니허 뒤를 수이 가

도힐 흘시라오 기우려어 즈러이 누늘알 아보고 쉬습사리 痛호히 뒤를 가도 허노라 流

離木杪猿翻僊山顛鶴

이노 猿鶴 一 七 改 氣運 一 디우물 깃기호논

양 조근 나리 나라오 나 못그테나 비 朋知苦

聚散哀樂日已作

라빈 돈 허심히 모드 락흐르 락하니 슬프이 즐기우이

나날로 하야니 **即事會賦詩** 人生忽如昨 뜻이

를 모다 하야니 그를 짓고 人 **古來遭喪亂賢聖**

**盡蕭索** 대로 오에喪亂은 맛나고賢 **胡為將**

**暮年憂世心力弱** 言遭亂則賢聖一皆蕭索

何獨憂世而至於心力一弱也 오오 잇테라

하야는 근나세世事를 시름하야心力을 보

**水閣朝霽奉簡嚴雲安**

**東城抱春峯江閣隣石面** 東城一峯 및 부리



옛지 본도 알 풀  
이 못 샷 도 다 **崔嵬晨雲白朝旭射芳甸** 근노

아 촌 쿠루 이 허 비 아 촌 히 비  
치 큰 다 온 郊甸에 소 **雨檻卧花叢風**

**牀展書卷** 비 오 노 軒檻엔 **釣**  
보 흥 부 노 林엔 곳 떨 기 누 엇 고

**簾宿鷺起丸藥流鶯轉** 바를 갈 공 예 거 로 니  
자 던 하 야 로 비 날 오

藥은 부의 유 니 나 라 **呼婢取酒壺續兒誦文**

가 노 곳 고 리 우 나 다 **晚交嚴**

選 기 집 동 을 불 리 酒 壺 를 가 저 오 고

**明府矧此數相見** 늘 거 서 嚴 明 府 를 사 과 요

니 흥 을 더 이 조 조 서 르 보

晚登灤上堂

故躋灤岸高頗免崖石擁灤水入 두 들 기 노

비례 2 려 요 들開襟野堂豁繫馬林花動기

즐여 르 나 여 냇 지 바 현 호 고 2 들雉堞粉如

雲山田麥無隴城 1 為 雉 1 三 丈 1 雉 堞 是 也

여 호 미 구 롬 2 고 빛 바春氣晚更生江流靜

猶湧靜 猶 湧 是 言 築 風 而 波 也 1 2 氣

리 소 사 나 2 다 오 히四序嬰我懷群盜久相踵



各枯冢 이 논 목 冢 周 孔 은 스 량 호 니 이 사 큰

제 거 품 은 큰 운 더 미 등 와 앓 도 다 楚星南 이 사 큰 이 시 거

天黑蜀月西霧重 楚蜀 의昏氣 을 가 조 비 더

히 여 등 고 蜀 스 드 랫 西 스 락 雲霧 스 듯 겁 도 다 安得騎鴻鵠迫此懼

將恐 甫 欲 騎 鴻 鵠 畜 飛 而 去 兮 以 免 恐

리 正 이 적 코 제 후 에 逼 迫 言 앓 도 다

登兗州城樓

東郡趨庭日南樓縱目初 論 語 에 鯉 趨 而 過 庭 子 路 亦 有 之



萬里流沙道征西過此門

流沙一在西北極吐蕃之城

使吐蕃及軍行一皆出此西門也

萬里人語沙로가는 是 謂 西 人 曰 그 로 甚 矣

로 이 이 門 也 但 添 新 戰 骨 莫 返 舊 征 魂

也 何 處 矣 門 也 但 添 新 戰 骨 莫 返 舊 征 魂

也 何 處 矣 門 也 但 添 新 戰 骨 莫 返 舊 征 魂

也 何 處 矣 門 也 但 添 新 戰 骨 莫 返 舊 征 魂

上白帝城二首

在夔州 意川公孫述 借號于此 意川公孫述

江城含變態고려一上고려一四고려新고려

天欲今朝雨고려山歸萬古고려

春고려英雄餘고려

事業衰邁고려久風塵고려

取醉고려

他鄉客相逢고려故國人고려

兵戈猶擁蜀賦斂尚輸秦고려

不是頰形勝고려涼慙고려

畏損神 이느니 사형 形勝호물 煩히 너져 아

擾亂 흔시 내 精神損害흔가 러 후미 리라

神 니라 기괴 북그류 문 精損흔가 첫노라

白帝空祠廟 孤雲自往來 公孫建의廟 在白帝城

白帝 에 祠廟 白帝에 祠廟 白帝에 祠廟 江山城宛

轉棟宇 客徘徊宛轉 은 猶周回也 棟宇에

나그 내 勇略今何在 當時亦壯哉 勇捷은

이재 어디 잇는나 오고 後人將酒肉 虛殿自



塵埃

將烟肉也祭者有라 ○後의 사그이을 고기물 가제 오늘 나빈 殿 건 될도 드드

도리잇谷鳥鳴還過林花落又開

뒤고리새는 우리도로로디

나가가고수프릿고

多慚病無力駢馬八青苔

病호야힘이업히물타프르이 석드러오을해분그리노라

上白帝城

城峻隨天壁樓高更女牆

女牆은城上堞也

하늘은石壁을조각히樓

江流思夏后風至

憶襄王

夏后은禹一治水공시나라宋王이 遊於蘭臺之宮一이

鵬鵬

늘有風一 翺然而至라  
기늘夏后물수람고  
을思憶

老去聞悲角人扶報夕陽  
夕陽늘기가  
을핀吹角

公孫初恃險  
자바서히터가  
다말외는  
다公孫初恃險

躍馬意何長  
蜀都城에公孫  
一 躍馬而稱帝  
一 처어의險

니던브디조로기도하

白帝城樓

江度寒山閣城高絕塞樓  
고로문치는  
로다나고城

은언곳樓에  
翠屏宜晚對白谷會深遊  
石屏

을나조히對言야슈이도음나  
흰고랫모로애기피노로라  
鷓鴣能鳴鴈

輕輕不下鷗  
能히우노그러기노  
能하로미

夷陵春色起  
기노가단야모  
여가비압도다  
漸擬放扁舟  
은峽州라○夾陵  
漸漸저근바글노고  
저니기노라

### 白帝樓

漠漠虛無裏  
連連睥睨侵  
睥睨는城上女牆  
라侵은言睥睨

樓  
一侵虛無之裏니謂其高也  
一侵言矣도다

先去日遠峽影入江深  
樓人비흔히에  
峽人그르에



靈龍虎睡江清日抱鼉鼉遊

峽一巖디고구루이무엇는다

龍虎一不을오고이북고

扶桑西枝封

斷石弱水東影隨長流

此極言樓高之狀

人덕가저는구촌든해얼깃고弱水人東덕그르헤는기리호르는다를조차가는다

杖藜嘆世者誰子泣血迸空回白頭

도트랏

고世를嗟嘆方는인누고되있타우라

陪諸公上白帝城樓宴越公堂之作

此堂存古制城上俯江郊

越公楊素之堂也



東流水生涯未即拋

이르는 인생을 두루 버리고  
다 못 할 서 須當行樂

니 드슴 구 티 여 歲月의 들 흐르 드 시 수 이 가  
될 무 리 오 호 니 라 東 嶽 그 로 흘 러 가 는  
무 들 문 다 알 른 디 니 人生  
을 큰 버 리 디 못 거 니 生 徒

城上

草滿巴西綠空城白日長

프른巴西에 고  
호야프르고된城

에  
리기도나風吹花片片春動水茫茫

부니고

시  
니駿隨天子群臣從

武皇

同穆王 一乘八駿 幸 亦 巡 行 天 下 宗 之





어름과눈과  
저비세서로지  
이슬  
물  
應  
多  
宿  
宿

霧濛濛濕朱拱浮雲細細輕  
霧濛濛濕朱拱浮雲細細輕  
霧濛濛濕朱拱浮雲細細輕

야저헛고불근대공엇든구  
杖錢塞帷瞻具

羨投壺散帙有餘清  
漢人宗資杖錢為

冀州刺史命塞帷  
冀州刺史命塞帷  
冀州刺史命塞帷

오물보누나投壺  
有餘  
自公多暇運

叅佐江漢風流萬古情  
叅佐江漢風流萬古情

시나江漢  
風流萬古情

又作此奉衛王

西北樓成雄楚都遠開山岳散江湖

西北樓

지이楚人都邑에雄北고니山岳

二儀清濁

還高下三伏炎蒸定有無

言此樓一高壯愈

見天高地下而三伏炎蒸은有乎無乎이言其必無也이라하늘과地氣은이

요이도르노平이노가오니三伏

推轂幾年

唯鎮靜曳裾終日盛文儒

古者推轂을推고니

言衛王之節鎮也이라鄒陽曰何王之門에不可免長裾이라하다。술위를이리와



타기 오鼓角人소리는  
서는 하는東國기로다  
屢食將軍第仍騎御

史驄

此는南自謂라  
將軍의 지 비와  
不

라本無丹竈術那免白頭翁

言無延年丹砂  
鍊服之術을 서

未免衰老也  
기니 잇테 어리해 어늘구물免호리오  
寇

盜狂歌外形骸痛飲中

盜賊은 어려운 놀았  
받기 잇는 니내일구

은 소기로中野雲低度水簷雨細隨風  
리해

은 나스지적물르간나가고삼이들  
잇비는고나라비라온꽃는다  
出號江城

黑題詩蠟炬紅  
夜傳號令은節度府人이리  
號令을배니고宮城

이듬고그를너니  
 此身醒復醉不擬哭途  
 窮言飲醉如沈藉  
 窮途哭則不擬學也  
 窮途애울오려기  
 기다아나하노라

臺上得涼字

改席臺能迥留門月復光

改席은自南樓로  
 移於臺上也

○ 뜻은고려하여臺上에  
 나門의이무리슈이  
 能히아노라하  
 雲

霄遺暑濕山谷進風涼

子 례인하늘해티위  
 夕 幸호미입스니

잇고로부르익서  
 老去一盃足誰憐屢舞長

늘 거기에 호판술리 못  
기름기리 호문늬이 옛  
何須

把官燭似惱鬢毛蒼  
言燭光似鬢毛之也  
照鬢毛也

구희의 구윳호브를 자  
타리의 세유문호늘이  
다

### 登岳陽樓

昔聞洞庭水今上岳陽樓  
다니 오늘岳陽樓

의을 오라 吳楚東南拆  
吳楚一在洞

此言洞庭闊遠之狀  
南이 기씨엇고하늘과  
吳楚一在洞

다親朋無一字老去有孤舟  
言朋友無問  
說而但乘孤舟

於興而己의라○親臨此지호호字人을일  
도함스니늘거가애의로원미듯잇도다  
戎

馬關山北憑軒涕泗流  
北사호엇只리關山人  
北의잇는니軒檻

은비제시  
를늘리노라

### 陪裴使君登岳陽樓

湖闊兼雲霧樓孤屬晚晴  
湖闊兼雲霧樓孤屬晚晴  
霧一조치잇고樓

禮加徐孺子詩接謝宣城  
禮加徐孺子詩接謝宣城  
禮加徐孺子詩接謝宣城

徐孺子名豫章人  
徐孺子名豫章人  
一니陳番一為太守  
設榻待之云니南一自比  
云니謝玄暉一為

宣城太守云니比裴使君也  
宣城太守云니比裴使君也  
一니다○禮는徐  
孺子의게다으니그를謝宣城  
을接對

雪岸叢梅發春泥百草生

눈이 오는 두들기  
눈 들을 꽃梅花

뜻고 북을 깬 온가  
뜻고 리는 토막

敢違漁父問從此更南征

屈原 | 放逐江南

이 어는漁父 | 問之  
南 | 今南存  
漁父亦問也  
니라 ○漁父

의 무구물기 뒤여  
아 일로브타  
建避  
가노라

送嚴侍郎하到繇州하同登杜使君하

江樓하宴得心字하

野興每難盡江樓延賞心

이 興心을 미양  
다 吳문호

呂樓에 賞玩  
문희노라

歸朝送使節落景惜登臨



朝廷으로 가는使節을 보내노라 할야  
다스히에登臨하야 누를앗기노라  
稍稍

烟集渚微微風動襟  
微微히 서서 물이 옷기들

위다重船依淺瀨輕鳥度層陰  
멀가온여호

리보릿고가비야온세는層  
層인고늘호로다나가는다  
檻峻背幽谷窓

虛交茂林  
窓軒檻  
위니거촌수프리섯것도다

燈光散遠近月彩靜高深  
불비촌遠近에호

靜하얏도다城擁朝來客天橫醉後參  
아城은

이온소늘호렛고하늘한解  
窮途衰謝意苦

調短長吟窮短長吟此

會共能幾諸孫賢至今肅宗人此

不勞來戶不勞來戶

閉自待白河沉謂不勞閉戶

七月一日題終明府水樓二首

高棟層軒已自涼秋風此日洒衣裳

層層軒檻一아절로시늘하나다

儻然

欲下陰山雪不去非無漢署香陰山은 匈奴人地名

四時에 常有 氷雪 故 曰 陰山 漢制에 南青 郎 舍 鷄 舌 香 故 曰 陰山 南 爲 工 部 郎 故 曰 陰山 可以

舍香이 안아르오직 滯於 夔峽 言야 不能去

耳니라○하늘하陰山 잇누니라고 저

가나갓춤 1 업지아니라 漢人 絶壁過雲開

錦繡疎松隔水奏笙簧夔峽路에 有 錦繡 岩 故 曰 錦繡 疎 松 隔 水 奏 笙 簧

가도 看君宜著玉喬履真賜還疑出尚方葉令 玉喬

有 神術 故 曰 玉 喬 履 每 來 朝 則 雙 鳧 飛 來 어 늘

舉網得之 言니 乃 尚 方 所 賜 履 也 1 리 來 言

終明府一如正喬也一라○그디를본던王  
喬의시늘시노미맛당하니眞實로주산거  
시尚方로서난거신  
가도로疑心하노라

宓子彈琴邑宰日終軍棄繻英妙時宓子賤

而治軍父하니終軍一十八에八關이  
늘關吏典軍繻호州軍一棄之而去하이라  
○宓子一기문고늘오고을하宰드니앗는  
나리오終軍一繻를비라느저문하로하

承家節操尚不泯為政風流今在茲風流는

聲一流布天下一니라言明府一繼終軍家  
業하고為政之義는如子賤也一라○家風  
을나엿는節操一오하려天다아니하니  
政事하는丘直조리느아제에잇도다可

憐賓客盡傾蓋何處老翁來賦詩

上句는 言 明府之愛

容也 一라 오 가히 뜻 오다 소는 다 蓋를 기우 리對接 有는 니 어 뒷늘은 한 다리와 서고를

楚江巫峽半雲雨清簾踈簾看弈碁

그리고 와 쓰 峽에 半 안 구름 과 비 로 소니 문 근 앞 과 앞 편 비 때 서 바 둑 장 의 료 보 노라

### 春日梓州登樓二首

行路難如此登樓望欲迷

관미 든 노애 어러 우어 이 글 登樓

身無却少壯迹有但羈縻

외 울 가 비 가 고 니 어 줄 할 듯 도 다 身無却少壯迹有但羈縻

江水

流城郭春風入鼓鞀

고음물큰城郭으로호를  
리가기늘분브큰은사

호복소리개  
도빛도다

雙雙新燕子依舊已

街泥雙雙

는새저이네를보더  
하아흔글브뜻다

天畔登樓眼隨風入故園

하늘고의樓의을  
맛는누기반근은

조자故園으로  
드러가는다

戰場今始定移柳更能存

言

園에舊所移種之柳는今更能存乎아○사  
호던어하이새비르사定호니음겨삼근

어드르任能  
하잇는사

厭蜀交遊冷思吳勝事繁

蜀의

야노는사려이冷호물아철고吳  
엇丘호이리하물스광호노라

應須理舟

揖長嘯下荆門다. 양이 모로 애비 글고 터기 리 뒷편 람 불 오 荆門으로 나

로다

### 登樓

花近高樓傷客心萬方多難此登臨고지 노

春色來天地玉壘浮雲變古今玉壍는 산名錦江

朝廷終不改西山寇盜莫相侵終不改는 亂

此處山在天地人뒤임보더變는 다니 玉壘極

國終不改는 亂

亡也 一 社 極 州 朝 廷 一 日 六 明 高 社 日  
아니 寺 引 日 西 山 賊 盜 賊 日 古 什 三 侵 犯 高

可 憐 後 主 還 祠 廟 日 暮 聊 為 梁 甫 吟 類

一 云 後 主 亡 國 者 一 日 何 是 祠 一 日 梁 甫 吟  
使 人 一 日 思 諸 葛 一 日 梁 父 之 性 一 日 梁 父 吟

一 亦 興 衰 之 感 也 一 日 一 日 可 吟 吟 五 道 吟  
後 主 一 日 一 日 祭 祀 一 日 一 日 梁 甫 吟

吟 甫 吟  
上 日

### 題新津北橋樓得郊字

望極春城上開筵近鳥巢  
近鳥巢 樓高言也 斗 〇 是 城 宇 詞

白 花 簪 外 翠 青 柳  
斗 〇 是 城 宇 詞



檻前梢

檻고조잡기함맛기별기오프

池水

觀為政厨烟覺遠庖

上句는言其澄清하야  
不可挽也  
라下句는

言見厨烟하야知遠庖厨也  
라下句는  
이  
라  
하  
야  
厨

西川供客眼唯有此江郊

西川에  
하  
나  
그

내  
누  
바  
울  
일  
거  
는  
오  
직  
이  
고  
동  
부  
野  
하  
와  
도  
다

閣夜

歲暮陰陽催短景天涯霜雪霽寒宵

歲暮에  
陰陽

霜雪霽寒宵  
五更鼓角聲

悲壯三峽星河影動搖

東方朔曰星辰搖動

五更鼓角三川曙  
千聲萬鼓發江聲  
江聲  
壯大  
野

哭千家聞戰伐夷歌幾處起漁樵

泣  
是  
是

은  
한  
산  
수  
에  
부  
근  
고  
들  
든  
노  
니  
되  
늘  
어  
는  
덧  
과  
대  
하  
고  
기  
사  
브  
의  
사  
모  
위  
리  
니  
나  
니  
오

卧龍躍馬終黃土人事昔書漫寂寥

卧龍  
孔明

正  
躍  
馬  
는  
公  
孫  
述  
라  
○  
龍  
上  
부  
어  
시  
여  
문  
들  
의  
면  
이  
리  
마  
초  
애  
부  
른  
훈  
기  
다  
와  
갓  
도  
소

거  
사  
로  
와  
일  
과  
속  
하  
고  
일  
과  
의  
속  
다

西閣二首

大曆元年  
西閣  
寓居

巫山小搖落碧色見松林

巫山 안호는 리라  
두이 티그 나 프

은 비늘 스 나 모 누  
프를 보 리 로 다

百鳥各相命孤雲無自心

相命은 相鳴也  
로 누 수 니 뒤 리 원 구 루 문 제 이 공 지

層軒俯江壁要路亦高深

層層 안 暫 越 리 고  
공 石 壁 을 뒤 리 리 는

니 조 로 원  
在 남 고 김 로 원

朱紱猶紗帽新詩近玉琴

朱紱은 朝服  
雖 爲 卽 而 今 處 閑 散 也  
隱 士 之 巾 리 나 甫

오 히 리 紗 帽 를 스 나 세 그  
레 토 琴 을 깃 가 이 호 라

功名不早立衰疾

謝知音

知 音 은 只 음 아 는 사 리 이 라  
을 일 세 다 못 호 나 는 고 病 言 中 知 音

을愧謝 哀世非王粲終然學越吟越人莊舄

야思辨而越吟言以思辨也

애越吟을

懶心似江水日夜向滄洲言欲優遊江海

애滄洲로向하야가다 不道含香賤其如

鑷白休含香은 見前終明府詩註다 言貧

애何耶오 香은의금도비스리 卑賤호다

그엇더 經過凋碧柳 蕭索倚朱樓다나오아

리 비리디는 다 蕭索히 畢娶何時竟消中得

自由 向子平曰男娶女嫁 終을 畢하고 斷家事 호리라 자유는 猶自得이라 子息姻

娶 口六은 어는 저과 다 호리 消中 人病 시어니 시러 吾自由 호야 리아 豪華者

古往服食寄宜搜 服食은 服仙藥也 搜는 搜尋山水冥幽之處

也 一 杜甫言豪華도 오직 古人之 어를 보 고 服食之術도 호로 호호라 호니 皆

自嘆之詞 一 豪華호호란 비디나 世 自嘆어를 보고 藥호야 어구 與搜호호

노라 詩盡人間興 兼須入海求 興을 다 짓고

바 리래드려 求호호문 조처호호호호라

夜宿西閣曉呈元二十一曹長

城暗更籌正城一어 드우더更樓高兩雪微漏人사스리인

稍通綃幕霽稍通綃幕霽遠帶玉繩稀玉繩은星

名一라어는皆言樓之高也一라○저기하

繩의드르로말되찾도中門鵲晨光起鵲晨光起檣烏

宿處非檣烏는檣上에刻爲鳥形호야以占

寒江流甚細有意待

人歸어는흐르느니로사르미드러오과다

흔로이 품히고느니사르미  
오물기들오는바디잇도다

### 西閣口號呈元二十一

神妙靈

山木抱雲稠寒空繞上頭

의햇남기구루물  
아나히니치운虛

空은머리우의  
회들잇도다

雲崖纒變石風慢不依樓

구

신비려는아야라들히改變하고비름  
부는帳은樓의요릿다아니하듯다

社稷

堪流涕安危在運籌

流言思社稷之危則堪為  
涕니安危는在大臣

의運籌如何耳니나○社稷은누고문흔령직  
하니便安하며바드라오문運籌호애인스

라者君話王室感動幾消憂

그의의王室人  
일닐우물보고

感動言야 멋버늘  
시르물슬아니오

### 西閣夜

恍惚寒山暮 逶迤白霧昏

逶迤는長遠也  
라○어 줄글치운

雲霧 | 어 두하도다 山虛風落石樓靜 月侵

門 외히빈디비리미들홀디오樓 | 寂 擊柝

可憐子無衣何處村 擊柝은巡警夜者 | 나  
其勞苦 | 可哀也 | 라

○ 拚 두드리느닌可히어옛븐사리時危關

百慮盜賊爾猶存 時節 | 危亂言저기온가  
짓해아료이모애거리



어는니盜賊아니  
오히러잇는다

宿江邊閣

瞑色延山徑高齋次水門  
아되비차잇길해  
무렛는니노곤

자본은문門에  
어으렛도다薄雲巖際宿孤月浪中  
翻얼은  
구루

은아훗고의셔가고외르원돌니  
손물갠가온티셔두위잇는다  
鶴鶴追飛

盡豺狼得食喧  
上句는喻軍士  
下句는  
喻盜賊  
라○鶴鶴  
조차

바르물다하니豺狼은  
바블어어셔수으는다  
不眠憂戰伐無力正

乾坤  
時有推肝及吐蕃之氣  
하니라○조노  
들어나하야셔戰伐을시름하니乾坤

온고톨히  
미업세라

### 西閣雨望

樓雨露雲幔山寒著水城

樓잇비는구름고  
은帳을저지고빗

經添沙面出湍減石稜生

결해  
물흐

러오래두프니길히타우고湍流

고  
은하

니물옛面下내일오묘菊藥漣疎放松林駐

遠情遠情은後凋不變

라  
○菊花人蕊는

어르던도다滂沱朱檻濕萬慮倚簷楹

滂沱  
는雨

眞一라。滂池호에 불근軒檻一뒤즈  
니한혜아도。로簾檢을비더什슈라

### 不離西閣二首

江柳非時發江花冷色頻고고르옛고지서岬고르옛버들나피

地偏應有瘴臘近已含春늘흐비치조도中

失하하가프나당당이디氣運을이엇도다日一갓가오나흐아

學從愚子無家住老身간어린아드르르

不知西閣意肯別定히너미노나지본늘근

留人아지못하리로다西閣人브든여회오  
물즐길가一定하야사르물어물올가

西閣從人別人今亦故亭

西閣도사릉여의 유물무던히너기

너나 자음도이제任故亭을사모리라

江雲飄素練石壁斷空

青

空靑은藥名이라○고르옛구루근한기 비부취는듯하고石壁은空靑이비취엇

도는다滄海先迎日銀河倒列星

先迎日은初日이先照此

閣也이나兩句는皆言西閣之高이라○바 르래돈는히로본져앗는니銀河엇비렛는

비취엇고로平生耽勝事吁駭始初經

平生은平生이로耽은다니놀라온사흔 비르시취영에를다내노라

西閣三度期大昌嚴明府同宿不到

問子能來宿今疑索故要

子是指明府一疑甫

의故要乞人을보라간가하야오디아니하도다하느아리라○그디더브러能히와하

드문다니이레나를번어匣琴虛夜夜手板

自朝朝

言期而不來故로夜夜어廢琴不撫호니明府는持手笏而朝朝에入官

也一라○匣인거문고가지고밥아다虛히이유니手板가지고스북로아춤아다든니

金吼霜鍾徹花摧蠟炬銷

鍾鳴而炬銷則夜向晨하니明

府기들우를세도룩홀시라○최우르니서리옛봄소리스○차옷늦다고지물어더니

말로흔브早鳧江檻底雙影漫飄飄早鳧는

芻事하니 이는 明府 一 不未故로 去漫飄飄  
一 가 한다 이 른 울 히고 軒檻 人 이 퇴 두  
그르네 속절업  
시나 보기 늦다

### 草閣

草閣臨無地 柴扉永不關

풀노니 온 지 비 삭  
업스던 디 랫는 나

섭나 오門을 기 리  
맛다 아 니 호라

魚龍回夜水星月動秋山

고기 과龍과는 많으려 도라 오고  
별과 드 큰 구름 외 해 뒤 옛도다

夕露晴初

濕高雲薄未還

고 나 죄 이 슬 른 언 뒤 처 업 지 지  
고 노 끈 구 루 문 열 뒤 도라 가

다 아 니  
다 늦다泛舟慙小婦

飄泊損紅顏 慙小婦는  
고 배 사

디 못호 물 붓그릴시라 ○ 박벽 위 든 노애 더  
지을 붓그리노니 두루 든 너브터 슈래 겨든  
는 처 터  
는 다

眺望

律詩九首

陪鄭公秋晚北池臨眺

嚴武一封鄭國公  
하니라

北池雲水閣華館開秋風

北년모애 구루엿  
리어 위니 밋난

매여 지비코운다 獨鶴元依渚衰荷且映空

殘 갓鶴은본디루운다 採菱寒刺

上踏藕野泥中

刺는 即菱之刺也  
와 只 踏 藕 野 泥 中  
이라 ○ 밧

蓮은란의꽃高  
나온디品노라素楫分曹往金盤小徑通

曹乘之而採菱고金盤에盛解고나通小  
徑而未也라。현비가로편바가나金

盤은과근관하로萋萋露草碧片片晚旗紅

旗는鄭公의旌旗니라。거촌이스렛盃酒

沽津吏衣裳與釣翁此는言津吏釣翁을皆  
有恩賜也라。자비

고외란釣翁을주노다異方初豔菊故里亦

高桐財은仲해처임고은菊花로소나搖

落關山思淹留戰伐功에어비러듀에關山



리이 슈나 사호嚴城殊未掩清宴已知終  
 城은 可장단의 아니 方야 何補參  
 軍之權娛到薄躬此는 自謙也 時為幕府參謀  
 의 업 수에 으스 의 補助 交 리 오 는 歡娛  
 흥 共 사 오 나 온 모 애 나 르 리 오 는 다

奉和嚴中丞西城晚眺十韻

汲黯匡君切廉頗出將頻漢汲黯 諫諍哉  
 帝 古 正 趙 人 廉 頗

為良將 一 나 此는 以 二 人 으 로 比 中 丞 也  
 中丞 金 高 士 吳 孟 切 高 士 廉

頗 一 中 持 兵 宜 直 詞 才 不 世 雄 略 動 如 神  
 是 不 正 也 尼 라

말하느니라 世에 업스니 雄意謀 政簡移風

略은 원다 아다 神意 뜻하도다 政治 簡易하나 風俗은 옮

速詩清立意新 政治 簡易하나 風俗은 옮

들세요 中 層城臨媚景絕域望餘春 絕域 은

니 蜀 一 與京師是遠也 一 니 凡言絕域 一 皆

然此 一 하니라 一 노 平淺也 一 且 意景은 臨하교

언 一 가 나 은 보 旗尾蛟龍會樓頭燕雀馴 蛟

은 보라 一 노 다 旗人 그 一 尾는 蛟龍 一 是地 平

江動蜀天闊 樹浮秦地 平 天闊 一 是 江動 樹

히 平하니 一 고 一 이 蜀에 뒤엎고 하 帝念深分

閩軍須遠笑縉

王者一遣將曰閩以外是將軍制之也

制之也 此言帝深春中丞也

軍須是軍旅所需也 縉是貫錢絲也

漢武之箕氏의 縉錢而稅之也 此笑法故至今中丞一遠棄其事也

念一閩은는針와는티기正軍中 花羅

에는는기을縉錢에유물어리호는다

封蛺蝶瑞錦送麒麟 蛺蝶麒麟은皆羅錦之

奉貢天子也 此言中丞之封也 祥瑞은원錦은란麒麟은보내은矣

辭第輸高義觀圖憶古人

漢武帝一霍去

言신어去病日匈奴一未滅호니無以為家 此言中丞一見雲臺功臣之畫也

고思效古人也○지불막라노은我  
를남공의음기음고그리물보아서넷사  
고

말스라征南多興緒事業暗相親此言中  
言뜻다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征南將軍杜預로事業一可相同也○

出郭

霜露晚淒淒高天逐望低此리와이슬와다  
霜露晚淒淒高天逐望低此리와이슬와다

조차늦가와외늦다遠烟鹽井上斜景雪峰  
조차늦가와외늦다遠烟鹽井上斜景雪峰

西人뒤늦는소금굽는우물우히오故國猶  
西人뒤늦는소금굽는우물우히오故國猶

兵馬他鄉亦鼓鼙

故國에 오하러 兵馬 一이 鼓鼙人 소

다리로

江城今夜客還與舊鳥啼

此는 感天 下

鳥俱啼言니 其憂國之心 一際矣 然○고 문 城잇 오늘 밤나그네 도로 냇가이 피와 닮았

우노

### 灤西寒望

水色含群動朝光切大虛

물비치 문위논 거

총비 초큰 虛空

年侵頻悵望興遠一蕭疎

上

이 고 랐도 다 年侵頻悵望興遠一蕭疎 上  
는 늘 구미 울시 故鄉에 가고 저 할야 되랄 시  
라○ 나히 侵逼거늘 不 至 슬허되 라 노니 興

心 | 어서 하도 다 猿掛時相學鷗行炯自如 自

위 蕭疎 하도 다 猿掛時相學鷗行炯自如 自

로 自 猶自得也 | 라 ○ 나 리 남 기 드 라 쥬 물 하

도 自 如 하 瞿塘春欲至定卜讓西居 瞿塘에 보

오 고 제 하 는 나 一 定 하 가 讓 하 西에 사 룬 서 하 는 占卜 호 리 라

### 曉望白帝城鹽山

徐步移斑杖看山仰白頭 발 회 아 거 려 이 르

고 의 하 를 보 노 라 하 야 翠黛開斷壁紅遠結飛

樓 프 른 비 치 기 프 니 그 른 石 壁 이 어 린 고 日

出清江望暄和散旅愁

물고고름은비라  
니희듯하니덤고

和호애나그예시  
물꽃러반리노라

春城見松雪始擬進歸

舟

봄城에소남것눈을보고노라  
비를나오고서비르너기노라

野望因過常少仙

野橋齊度馬秋望轉悠哉

외엿다리고죽호  
타모를건내야고

그런히비라오니  
그장머도다

竹覆青城合江從灌口來

노대

青城山을두려모앗고그  
은灌口로허조차오사다

入村樵徑引嘗

果栗園開

모은히드르니야모지  
씨가고果實를맛보노라  
하야밤

낙곳 위안  
落盡高天日  
幽人未遣回  
노포하  
늘해시

아디거늘  
幽人  
히여  
곰독  
아보내지아니하하다

野望

淸秋望不極  
迢遞起層陰  
오문고고  
올려  
방라

아우라  
히여  
러  
불어  
遠水無天淨  
孤城隱霧

深城은  
雲霧  
에그  
우하  
야  
김  
뿔  
도다  
葉稀

風更落山  
迥日初沉  
나九月에  
秋風  
1  
落  
하  
하

아  
이  
가  
신  
야  
하  
라  
터  
불  
오  
외  
하  
獨鶴歸何晚



昏鴉已滿林

此는 喻君子 退而 小人 競進

엇더 리 뒤 나 오 어 드름 에 가 아  
이 흥 마 수 프 리 노 두 흥 앳 도 가

野望

金華山北澹水西 仲冬風日始淒淒

金華山 人北과

澹水 西 人北과 仲冬 風日

山連越 雋蟾三蜀

水散巴渝下 五溪

雋音 龍 一라 오 외 흥 越 人그 글 헤 서 앳 三蜀 에

什 興 고 오 른 바 渝 가 호 리  
五溪 로 는 려 가 노 伍 다

獨鶴不知何事舞

飢鳥似欲向人啼

호 오 앳 鶴 은 아 다 못 흥 리  
로 다 오 스 일 로 흥 호 는 니



아오라하  
갓노라

唯將遲暮供多病未有涓埃答聖

朝

涓는 소流니涓埃는喻細小也라오  
직는下를디하病에은이노니涓埃마

도聖朝를對答호  
미있디못호라

跨馬出郊時極目不堪人

事日蕭條

모르다의해나가時도누들고장  
보니사근의이리나날蕭條호문

이그디모  
호리로다

亭榭古詩三首

律詩八首

陪李北海宴歷下亭

亭一在濟  
州하디라

東藩駐皂蓋北渚凌清河

東藩는指青齊라  
皂蓋朱

輔亨々니駐皂蓋는謂李邕一留治于此也

一라此渚는即北海니清河와其北오니라

○東藩에거은蓋물어물우시니北是海右

물고은물고河水에凌犯호호도다

此亭古濟南名士多甫自註邑人蹇處士等

人더권이亭子一네로오니濟雲山已發興

水南면일흥남士一하도다

玉佩仍當歌구름신외히호아興을베프기

로볼當낫도다脩竹不受暑交流空湧波이논대

수늘홀히호은큰알티업다홀시라○근대

수희더귀를받다아어호는니씻거호르논

물리혹정업시蘊真愜兩遇落日將如何

말리호호는다

亭一歲蓄真趣  
如與未盡而日已西  
類何은○真趣를以

貴賤俱物後從  
貴賤俱物後從

公難重過  
貴乎이賤하사근이다物에브리

어림도다  
어림도다

登歷下古城負外孫  
新亭故亭對

鵲湖라니時에李之芳  
自尚書郎로

出齊州  
制此亭於北海太守李邕

吾宗固神秀體物寫謀良  
吾宗正指之芳言能體物景良



光

四大言四方見日廣大也斗見三星

入也斗言高也見日月星辰之出

斗負郭喜粳稻安時歌吉祥

見負郭粳稻之給言且知

為安樂之伴而歌味之也斗升也城郭

斗是斗也

同李太守登歷下古城負外新亭

新亭結構巖隱見清湖陰

新亭子也清湖陰

是湖也迹藉臺觀舊氣冥海岳深





호시 渠市吟을 시  
리 吾 兼 亨 노라

滕王亭子二首

君王臺榭枕巴山萬丈丹梯尚可攀

君王一人  
臺榭

巴山은 버섯 누나 萬丈인 불근 두리

春日鶯

啼脩竹裏仙家犬吠白雲間

플불나래고대수  
안해서고고

리 솔 오 神 仙 의 지 비 천 구  
름 수 이 예 서 가 허 죽 낫 다

清江碧石傷心麗

嫩藥濃花滿月斑

麗 호 매 두 수 문 슬 후 니 보  
문 호 매 두 수 문 슬 후 니 보

드 라 은 곳 부 리 와 들 거 온 고 쯤 어  
르 누 근 거 시 눈 예 2 두 후 샷 도 다 人到于今





登牛頭山亭子

路出雙林外亭窺萬井中

井은市井也

가로났고유자는萬井江城孤照日山谷遠

含風

고로城에외로이히비하었고兵革身

將老關河信不通

矣華사리에모이將次人

猶殘數行淚忍對百花叢

오히려두

리기잇는니온가짓곳피

題鄭縣亭子

鄭縣亭子澗之濱戶牖憑高發興新鄭縣人

雲斷嶽蓮嶽蓮은蓮花峯也

臨大道天晴宮柳暗長春長春은宮名

多라○구루미그츠니蓮宮蓮宮은蓮宮名

巢邊野雀群欺燕花底山蜂遠趁人자

欲題詩滿青竹晚來幽獨恐傷神은다

更은다

欲題詩滿青竹晚來幽獨恐傷神은다

精幽深言뒤늘오아이서  
精神을술출가전노라

### 重題鄭氏東亭

萃亭入翠微秋日亂晴暉

山不及上曰翠微  
라○ 및난亭子

翠微에드러나니그은히는  
문근미치어드러왔도다

崩石歌山樹清

連曳水衣

水一成一文曰連  
라○ 물어진 돌흔 뒷남글기우

리허기늘문근문기  
문이슬인얼도다

紫鱗衝岸躍蒼隼護

巢歸

블근비늘은두들글다  
문애노기슬敎護하  
라도라오뜻다

向晚尋征路殘雲傍馬飛

나조는向夕야  
관늘木正나殘하

가루미르를  
부러지니다

### 泊松滋江亭

紗帽隨鷗鳥扁舟繫此亭

紗帽스고글머리  
글조차와저근리

江湖深更白松竹遠還青

江과湖  
과집고

一柱全應近高唐莫

말오도도프르도다  
고고고고고고고고

再經

一柱觀은在江陵고고高唐觀은在巫  
峽다다○一柱一소허당당이맛가오

今宵南極外甘作老人

가니高唐을다시디나  
가디못하리로다

星

此老人星은甫一自謂也이라○오고밤  
南極人맛기와老人星은외야누물들고하





分類杜工部詩卷之十四







